

‘트리플나인’ 등장 사실적...장외발매소 옥에 티

가속불패 등 실존 경주마 영상 나와
고배당 적중·환급금도 현실적 묘사
지정좌석 전한 발매소 드라마와 달라

글로벌 OTT(동영상 플랫폼) 넷플릭스의 ‘오징어게임’이 한국 뿐 아니라 미국, 유럽 등 전 세계 TV 프로그램 부문에서 1위를 기록하며 연일 화제다.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 기훈(이정재 분)은 경마 외에 취미가 없는 40대 백수다. 드라마 초반, 기훈은 딸의 생일선물을 살 돈을 벌리기 위해 경마를 한다. 계속되는 실패. 하지만 마지막 순간 복승식에 적중된다. ‘오징어게임’에 경마가 등장하는 것은 3분 남짓이나 주인공이 처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줘 강한 인상을 주었다. ‘오징어게임’에 등장한 한국 경마는 실제와 어떤 점이 같고 다를까.

●스타 경주마 트리플나인 영상 사실적

“2위에 9번마 트리플라인, 3위에 6번마 드라이쎈더...” 기훈이 화상경마장에 들어선 순간, 경주를 중계하는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실내를 채운다. 한국경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트리플나인을 떠올릴 것이다. 비록 ‘오징어게임’에서는 2위에 머물렀지만 실제로는 한국경마 사상 역대 최고인 42억 원의 상금을 수득한 전설로 꼽히는 유명 경주마다. 중계에 등장하는 가속불패, 화랑, 런던타운 역시 실존 경주마다. 런던타운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국제경주 ‘코리아컵’에서 우승 트로피를 두 번이나 받았다.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에는 경마장이 등장한다. ‘트리플나인’이라는 경주마 이름부터 적중 상황 등을 꽤 현실적으로 그려냈다. 한국을 대표해 두바이 원정 출전에 나섰던 트리플나인(가운데).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에서 운영 중인 문화센터 오프라인 강의. 탁구 국가대표 선수들의 레슨 이벤트(왼쪽 사진부터 시계방향).

경마 적중 상황도 꽤 현실적이다. 극중 기훈은 6번마 천둥이와 8번마 광속질주에 베팅하고 복승식에 적중해 456만원을 획득한다. 드라마 속 배당판에서는 복승식 약 110배의 배당률을 보여준다. 경마는 배당률이 100배를 초과하거나 환급금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2%의 기타 소득세가 붙는다. 기훈이 5만원을 베팅해 117배의 배당을 받는다면 세금 129만원을 떼고 456만 원을 환급받는다.

●달라진 장외발매소, 예전 모습 표현 아쉬워 하지만 드라마 속 화상경마장의 모습

은 지금과 많이 달라 아쉬움을 자아냈다. 경주를 보는 기훈과 경마고객들은 질서 없이 복석이며 중계모니터 앞에 모여 있다. 마지막 경주 직전 기훈은 마권 발매를 위해 줄을 선 채 OMR카드를 보며 고심한다. 바닥에는 경주가 끝나고 적중하지 않은 마권들이 버려져있다. 심지어 기훈은 화상경마장에서 소매치기를 당하고, 사채업자들에게 쫓기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한국마사회는 2016년 전체 장외발매소를 지정좌석 및 좌석직원제로 전환해 본인의 좌석을 이탈해 모이는 것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매장마다 평균 60여



명의 직원이 경비, 미화, 질서유지 직무를 맡고 있다. 2014년부터는 장내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마권을 구매하는 ‘전자카드(구 마이카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창구 앞에서 마권 발매를 위해 줄을 설 필요 없이 좌석에 앉아 구매할 수 있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는 미술작품 전시, 북카페, 야외공연 등이 설치되어있고 비경마일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센터로 운영될 정도로 밝고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관리되고 있다.”라고 아쉬움을 밝혔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루카스 클래식 스테이크스’ 대상경주에 출전한 닉스고가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고 있다. 사진출처 1 차털다운스 경마장

닉스고, 美 ‘루카스 클래식’ 제패 ‘브리더스컵 클래식’ 앞두고 컨디션 업 성공

한국마사회 소속 경주마 닉스고(5세 수)가 2일 열린 미국 ‘루카스 클래식 스테이크스(Lukas Classic Stakes, GⅢ, 1800m, 데르, 3세 이상)’ 대상경주에서 우승했다. 닉스고는 8월 휘트니 스테이크스(GⅠ)경주서 우승해 브리더스컵 클래식(Breeders’ Cup Classic, GⅠ) 출전권 및 출전료 면제 혜택을 얻었다. 이번 루카스 클래식 스테이크스는 브리더스컵 클래식을 앞두고 컨디션 조절을 위해 출전했다.

닉스고는 이번에도 시작부터 막판까지 줄곧 선두로 달리는 주행전략을 펼쳤다. 경합을 벌이던 스프롤이 4코너까지 집요하게 추격했으나 막판 체력고갈로 뒤처졌다. 이어 인디펜던스 홀이 마지막까지 닉스고를 추격하며 역전을 노렸지만 닉스고는 여유롭게 선행을 이어가다 직선주로에서 막판 스퍼트로 격차를 벌리며 4마신(9.6m)차 우승을 차지했다.

닉스고와 호흡을 맞춘 조엘 로자리오 기수는 “닉스고의 경쟁마 대응능력을 보기위해 재출하지 않고 주행을 맡겼다”며 “닉스고는 4코너에서 한숨 고르며 체력을 비축하더니 직선에서 폭발적으로 스피드하며 세계 정상급 경주마다운 노련함을 보여줬다”고 전했다.

닉스고는 11월6일 ‘경마의 올림픽’이라 일컬어지는 브리더스컵의 메인경주인 ‘브리더스컵 클래식’에 출전한다. 현재 닉스고는 브리더스컵 클래식 인기마 투표에서 1위, 세계경주마랭킹에서 데르 경주마 1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이수진 기자 sujini22@donga.com

루키 컴플리트벨류, ‘จู버나일 시리즈’ 첫 대회 우승

데뷔 후 4전 4승 상승세 이어가

한국마사회 서울 경마공원에서 3일 열린 문화일보배(제8경주, 1200m, 2세, 국OPEN)에서 루키 컴플리트벨류가 우승했다.

2위 원평가속과 3마신 차이로 결승선을 통과했으며 경주기록은 1분13초2다. 컴플리트벨류는 이번 우승으로 데뷔 후 4전4승의 상승세를 이어갔다.

‘문화일보배’는 최강 국산 2세마를 가리는 ‘จู버나일(Juvenile) 시리즈’의 첫 대회다. ‘จู버나일 시리즈’는 서울과 부경 각 경마장에서 국산 2세마로 한정된 2번의 대상경주를 통해 지역 대표를 선발한다. 지역 대표마들은 12월5일 부경 경마공원에 모여 ‘브리더스컵’으로 최강 신예마를 가린다.



3일 열린 문화일보배에서 루키 컴플리트벨류가 우승을 차지했다. 컴플리트벨류를 육성한 박재우 조교사(왼쪽)와 임기원 기수가 트로피를 들어 올리고 있다. 사진제공 1 한국마사회

컴플리트벨류와 데뷔부터 호흡을 맞추고 있는 임기원 기수는 “출발대에 잘 들어가지 않아 걱정스러웠지만 구상한 다양한 경우의 수대로 차분히 경주를 이어갔다”

며 “꾸준히 훈련을 거듭하면서 호흡이 좋았던 것이 유효했다”고 평했다.

컴플리트벨류를 육성중인 박재우 조교사는 이번 우승으로 서울 다승 조교사 1위를 굳혔다. 박재우 조교사는 “말의 혈통과 능력이 모두 좋아 연거푸 우승을 거두고 있다. 게이트 이탈 후 힙 안배가 안돼 아쉬웠지만 기수가 노련하게 대처했다. 말 건강이 허락하는 한 남은จู버나일 시리즈도 출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부경 국산2세마 대표를 가리기 위해 열린 ‘아름다운질주 Stakes’에서는 1분12초7의 영광의레전드(2세, 수, 한국, R31)가 우승했다. 서울의 컴플리트벨류와 0.5초 차에 불과해 이어지는 ‘จู버나일 시리즈’가 더욱 흥미로울 전망이다.

김재범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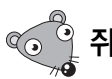
獨 토르콰토르 타소 깜짝 우승 100년 역사 ‘개선문상’ 100번째 왕좌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경주 ‘개선문상’(Prix de l’Arc de Triomphe, Int’GⅠ, 3세 이상, 2,400m, 총 상금 500만 유로(약 70억 원) 대회가 10월2일(이하 현지시간) 열렸다.

올해 개선문상은 대회 기간인 2일과 3일 여러 경주가 열렸지만 메인 경주인 개선문상은 3일 오후 3시5분에 진행했다. 프랑스 외에도 영국, 독일 등을 대표하는 14마리의 말들이 출전했는데 우승은 독일의 토르콰토르 타소가 차지했다. 경주 기록은 2분 37분62. 아무도 예상치 못한 깜짝 우승이었다. 초반부터 중반까지 5~6위권을 유지하던 토르콰토르 타소는 결승선 200m전부터 치고 나오기 시작해 막판 결승선에서 타나와를 4분의 3마신차로 제치며 기적을 이뤄냈다.

이수진 기자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10월 8일(금) 음력: 9월 3일 문의 : (02) 812-1201, 도원학당
--------------	--

 쥐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소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호랑이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토끼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용	행운색: 흰색 길방: 서	 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어떤 일에서 다른 일로 바뀌어지는 운기의 날이다. 그러나 개혁을 급격히 행하기는 어려우며 서두르면 실패를 초래할 수도 있다.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계속함으로써 좋은 결과가 얻어질 것이다. 거래에서 큰 건수가 들어온다.	창고에 곡물이 산과 같이 쌓여있는 운기이다. 대망을 품은 자는 먼저 힘을 쌓아두지 않으면 안 된다. 위협이나 장애도 당당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 비교적 안정된 때이므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의 계획을 세우고 착수하라.	뜻을 달고 배가 물위를 가는 기운으로서 박을 향해 큰 기운을 발산하고 대사업을 이룩해 가는 시기이다. 이제까지의 불운을 만회하고 격정이나 번민에서 해방되는 때이다. 하지만 너무 태만하다보면 모처럼의 행운도 놓치게 된다.	자칫 인간관계에서의 트러블로 인해 곤고한 지경에 놓이게 되며 그로인한 심리적인 갈등과 마찰로 의욕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한동안의 안정으로 다소 여유를 얻으며 생각지 않은 만남이 연출된다. 지출이 많을 때이다. 자제하라.	문서에 따르는 변화에서 명예가 따르나 과욕을 부리면 도리어 구설이 뒤따르는 경향이 있다. 명예, 문서적인 측면에 신중을 가하여 결여된 부분이 없는가를 확인하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운이기도 하다.	되도록 무리를 하지 말고 쉬운 길을 골라서 식전 있는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함부로 나아가지 말고 자기 몸을 돌아보고 인력을 연마하며 위험한 때가 지나갈 기다려야 한다. 운이 막혔으니 큰 것은 바라지 말라.						
 말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양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원숭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닭	행운색: 검정 길방: 북	 개	행운색: 흰색 길방: 서	 돼지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사람의 턱과 같은 운기의 날이다. 사람은 턱을 움직이면서 음식물을 씹어 먹고 육신을 기른다. 이처럼 턱은 만물을 기르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병이나 화또한 입을 통해 들어오고 나간다. 구설수나 과식으로 인한 소화불량을 주의하라.	무슨 일이나 엇갈리고 배반되어 잘 들어맞지 않는다. 주위의 모든 사람이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팔방이 꽉 막힌 상태이다. 당장은 힘들어도 차츰 나아지는 운세이나 자포자기에 빠져 협력자에게 배반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평화로운 생활을 하던 사람이 안이한 생활에 젖어 물질적으로 파탄이 오거나 정신적으로 퇴폐적인 생활을 하게 될 때이다. 하지만 부패와 혼란의 시기는 동시에 혁신, 신생의 시대를 할 수 있다. 이때를 심기일전의 기회로 삼아라.	의욕이 충만한 가운데 자신의 일이나 문제 등이 현실로 돌입되는 시기이니 현 상황에서 확장이나 변화를 시도하기 위하여 과감한 행동이 따라야 하며 너무 주위를 의식할 필요는 없다. 용기를 가져라. 최후까지 노력하면 달성된다.	문명이 과도하게 진보하면 퇴폐의 미를 좋아하게 되어 마침내 소박한 생명력을 잃고 만다. 개인에게 있어서는 외면만을 치장하고 내면적인 깊이를 잃고 만다. 매사 외견상의 화려하고 성대한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신중해야 한다.	의욕이 너무 앞서거나 물질적인 면을 강하게 추구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태에서 안정을 찾도록 하라. 한편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독자적인 행동보다는 인간적 유대관계에 마음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 신변에 가까운 일은 성취된다.						